

세계 곳곳에 전승되는 불의 기원신화

글 | 권태효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의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보는 생각일 것이다.
때문에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화가 각 민족별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창세신화이다.
창세신화는 흔히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데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모습처럼 세상이 정돈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것으로 흔히 나타나는 것이 불의 기원신화이다.

우리에게 불의 기원신화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역시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신화일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인간을 창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대지에서 흙을 조금 떼어내어 물로 반죽하여 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에게 직립자세를 주어 다른 동물들은 다 얼굴이 밑을 향하여 땅을 보는 데 반해, 인간만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능력을 부여하고자 프로메테

우스는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한다. 불을 훔친 곳은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이라고도 하고 올림푸스산의 신들의 난로에서 훔친 것이라고도 전한다. 불은 인간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고, 인간의 활동시간과 영역을 크게 넓혔다. 또한 불로 쇠를 단련하여 무기를 만들어 어떤 동물이든 사냥할 수 있었고, 도구를 사용하여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몰래 불을 가져다 준 죄로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되어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채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게 되고, 밤이면 그 간은 새롭게 되살아나 다음 날도 똑같은 형벌을 거듭해서 받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1 ● 불을 가져오는 것이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

이런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불은 인간에게 문명을 가져다주는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들의 영역에서나 다룰 수 있는 아주 존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은 신들의 세계에서만 용인되는 것이기에, 인간 세상으로 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된다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불을 가져오는 것이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줌으로써 인간에게 커다란 문화적 발전을 안겨 주는 문화영웅으로 숭앙받게 된 것

이다(사진 1 참조).

아울러 불을 천상의 대장간으로부터 훔친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는 신화적 설정이다. 불을 통해 쇠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공간인 대장간을 불의 근원으로 설정한 것은 분명 불의 문화적 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불이 음식을 익혀 먹거나 단순히 어둠을 밝히고 난방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불의 일차적인 목적 그 이상의 의미, 곧 수렵이나 농경과 같은 인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생산 도구나 무기를 제작하는 법이 불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분명 인식했다는 증거가 된다.

한편 이처럼 천상으로부터 불을 훔쳐내는 신화 형태는 아프리카 도곤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흥미롭다. 도곤족의 경우는 그 종족의 시조가 되는 여덟 조상 중 하나가 천상의 대장장이였는데, 인간 세상에서 대장



간을 만들려 해도 불을 얻을 수 없자 하늘의 대장장이인 대정령의 작업장에서 태양의 부서진 조각을 훔쳐내 지상으로 도망쳐온다. 천상에서는 그를 징치하기 위해 신을 보내 천둥과 번개를 내리지만 그런 천상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관절이 꺾이게 되면서 오히려 농경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도록 팔 다리의 구조가 변하였으며, 각종 불과 관련된 의례 및 대지를 정화하는 행위도 여기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사진 2 참조).

도곤죽의 신화에서도 불은 천상의 대장간으로부터 훔쳐오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런 불의 기원에서부터 농경의 여러 가지 법이 마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곧 불의 기능이 인간이 도구를 만들 수 있게 하여 농경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인식까지 신화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곤죽의 신화에서 보이는 불이 태양의 조각이라는 인식도 세계 신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이다. 불의 기원신화에서는 흔히 불을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는 신화가 적지 않다. 부싯돌을 서로 부딪쳐 불을 낸 다거나, 부싯돌과 쇠붙이를 마찰시켜 처음 불이 생겨나

사진2 ● 도곤죽의 시조가 되는 여덟 조상을 나타낸 용기. 이들 중 하나가 천상의 대장장이로, 천상으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전한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

게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신화에서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발화 방법(發火方法)을 설명하는 신화와 함께 태양을 이용해 불을 얻는 신화 사례도 종종 있어 불의 기원과 태양의 친연성이 인정된다.

인도의 정글에 사는 주앙그족의 신화에서는 불의 신인 루시가 밧돌을 발로 굴러 불을 일으켜 산과 나무들을 모두 태워 세상을 재로 만드니, 인간들이 불의 신을 나무와 돌 속에 살도록 하고 향을 피워 모든 신들보다 먼저 불에 받들어 올리는 법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신화에서도 루시가 밧돌을 굴러 불을 만든 밧돌은 태양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뉴질랜드 지역의 신화에서도 천상계로부터 불을 훔친 마우신이 천상의 화신(火神)의 추적을 따돌렸을 때 비로소 태양이 떠올랐다고 하여 불의 기원과 태양의 밀접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태양이 불덩어리라는 인식에서 불의 기원을 연상한 데 따른 신화일 것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오목렌즈 형태의 것으로 태양빛을 받아 불을 붙이기도 했다는 것으로 보아 태양빛을 가져다 불을 붙이는 발화법(發火

法) 또한 이런 신화적 설명을 하게 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 신화에서 불의 신은 아그니이다. 아그니는 신들과 인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런 불의 신을 모시는 제단은 해가 뜨는 방향, 곧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동쪽을 향하고 있다. 이 또한 불과 태양의 연관성에 대한 의식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사진 3 참조).

한편 이처럼 천상으로부터 불을 가져오거나 태양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불의 기원을 설명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불의 기원을 밝히는 신화가 창세신화에 포함되어 전승된다. 함경도 지역에서 무당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었던 세상의 창조를 노래하는 <창세가>를 보면 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불의 기원이 전해진다.

태초에는 세상이 마치 솔뚜껑을 서로 엮어놓은 것처럼 맞붙어 있었는데, ‘미륵’이라는 거인이 생겨나 하늘과 땅을 벌려놓고는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하늘에 낮이면 해 두 개가 떠 있고 밤이면 달 두 개가 떠 있어, 낮이면 뜨거워서 못살고 밤이면 추워서 못 살게 되자 양 손으로 해 하나, 달 하나를 따서 그것을 부셔 하늘에 뿌려 밤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다. 그 다음 인간을 만들고자 하늘에 축수하여 금쟁반에 금벌레 다섯 마리, 은쟁반에 은벌레 다섯 마리를 받아 각

기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는 인간을 위해 물과 불의 근본을 찾아준다. 먼저 풀메뚜기를 잡아 물과 불의 근원을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자 다음으로는 풀개구리를 잡아 물어보니 생쥐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생쥐를 잡아 물과 불의 근원을 물어보니 자신에게 대가로 무엇을 주겠는가 물어, 뒤주에 있는 쌀을 인간보다 먼저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자 물은 소하산의 샘물이 근본이 되고, 불은 금당산에 들어가서 한손에 차돌을 들고 다른 한손에 쇠를 들어 툭툭 치면 된다고 하여 물과 불의 근본을 찾아준다. 그 다음에는 미륵과 석가가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다가 석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차지해서 인간 세상에 선과 악의 유래가 생겼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창세신화에서 보면 이처럼 창조신의 천지분리, 천체의 형성, 인간 창조, 선악의 유래 등과 함께 인간에게 문화를 가져다주는 방편으로 물과 불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어느 곳에 있는 불을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의 발견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물의 발견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물의 발견 또한 그저 단순히 물을 찾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며, 불과 연결되어 또 다른 문화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불로만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는 가장



사진3 ● 인도의 불의 신 아그니

초보적인 구운 음식의 조리만이 가능했던 데서, 물을 부어 음식을 익혀 먹자면 자연히 용기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기존에 구운 것을 먹던 데서 발전하여 용기를 만들고 이용해야 음식을 물과 함께 익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문화사에 있어 또 하나의 문화적 진전을 가져오는 부분이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전승되는 불의 기원신화에 우리나라처럼 불과 물의 발견이 쌍을 이뤄 나타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이족의 창세신화에도 불의 기원을 밝히는 내용이 전해지는데, 원숭이가 우연히 불을 발견하여 화식(火食)을 함으로써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 아주 흥미로운 신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숭이가 불의 발견을 통해 익힌 음식을 먹게 되고, 이런 화식을 통해 비로소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여타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능력이 곧 불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이 처음 생성될 무렵 천신인 어어마가 세상에 만물의 종자를 뿌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 곤충 등을 번식시키는데, 물고기들이 여러 번 변화를 거듭하여 원숭이로 변하게 된다. 이들 원숭이가 다시금 변화하면서 무리를 지어 살게 되었고, 산을 기어오르는 데 네 다리로 오르는 것이 불편하여 머리를

들어 몸을 일으켜 두 다리로 걷는 법을 배우다가 그만 산 위에 있는 돌을 잘못 밟아 그 돌들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쳐 불꽃이 일어 큰불이 났다. 숲이 다 타고 나니 거기에 불에 구워진 고기들이 잔뜩 있어 원숭이들이 포식을 하였다. 원숭이들이 이들 익힌 고기를 먹은 후부터 점점 변하여 사람 모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눈 하나, 팔 하나, 다리 하나 달린 비정상적인 인간 모습으로 변했다. 하지만 눈, 팔, 다리 등이 모두 하나씩뿐이어서, 세상을 온전히 볼 수가 없었고 제대로 걷거나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 초기의 인간들은 일찍 죽어버렸고, 그 뒤 다시 한 무리의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 형상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이나 여전히 눈이 수직으로 달린 수안인(豎眼人)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그 뒤 이런 수안인은 신의 징벌을 받아 홍수로 몰살되고 오늘날과 같은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전한다(사진 4, 5 참조).

여기에서 원숭이가 돌의 마찰을 통해 불의 생성 원리를 처음 찾았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원숭이가 화식을 함으로써 인간의 형상으로 진화해간다는 설정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불의 발견을 기준으로 자연의 단계에서 비로소 문명의 단계로 전이된다는 의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은 인류의 문화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



사진4 ● 중국 운남의 미륵현(彌勒縣) 소재의 홍만(紅萬)마을의 이족 제화절 축제 모습. 창세신화에서는 원숭이가 잘못 밟은 돌이 마찰을 일으켜 불을 일으켰다고 했으나 통나무에 나무 막대기를 비벼 불을 일으키는 형태로 불의 발화를 재현하고 있다.



를 지닌다. 불의 발견은 자연을 극복하고 인류가 문명으로 접어드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 된다. 이전까지 자연에 순종하고 종속되어 살던 인간이 불을 발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제약에 대한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불의 발견을 통해 음식을 익혀먹는 음식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불을 가지고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그 전에는 활동이 불가능했던 밤 시간에도 불로 어둠을 밝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연장시켰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인류가 전혀 생존할 수 없었던 지역까지도 생활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이런 불을 이용해 청동기나 철기와 같은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의 발견이 인간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불의 기원

사진5 ● 중국 이족의 제화절 축제 모습. 이 곳에서는 불을 처음 발견한 신을 '아우'라고 여겨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발견한 데 대한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다. 한 쪽의 발을 높이 들었다가 발을 바꿔 다른 발을 높이 드는 형태를 반복하는데, 이것은 '아우'가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불을 다룰 줄 몰라 불이 발등에 떨어져 뜨거워하는 모습을 춤 동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신화에는 죽음의 기원이 함께 결부되어 나타나는 신화도 다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아마존 남부에 거주하는 아피나이에족의 불의 기원신화를 예로 보면, 한 소년이 불을 가진 표범의 양아들이 되어 불을 얻어오지만, 길을 가는 도중 표범이 일러준 대로

하지 않고 썩은 나무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여 결국 그 때부터 인간의 생명이 짧아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곧 불을 얻는 과정에서 죽음도 아울러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불의 발견이 인류에게 커다란 문화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맞섬으로써 결국 인간은 짧은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인식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불은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문화의 발전이 반드시 인간이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세계 불의 기원신화에서는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